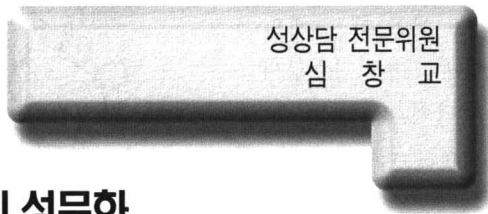


요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성교육 의무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의 보건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홍보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고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건강한 성(性)의 이해

- 성과학의 발달과  
성의 이해 (2) -



## 1. 한국의 성문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성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성(性)이 가지는 자체의 어려움과 아울러 오랜 유교의 지배아래 있었던 우리 사회의 성의식(性意識)을 비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왜곡된

성문화(性文化)를 바로잡고 남성위주의 이중적인 성의식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며, 급변해 가는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반드시 성의식을 바로 잡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 (1) 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인식(性認識)은 큰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는 '성'이란 말 자체가 오로지 성관계(Sexual Intercourse), 여자, 성행위(Sexual Behaviors) 등으로만 이해가 되고 있고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생식적 영역에 관한 개념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여성의 경우는 앞의 성관계와 생리적인 것과 연결이 되고 순결의 문제 등과도 관련되고 있다. 즉 남성들은 성을 곧 성관계와 그 대상으로서 여성과 동일시(同一視)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축소된 성관계 개념은 남성 중심적이고 성기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을 분절화(分節化), 대상화(對象化)시키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남성에게 있어 성관계는 여성에 대한 소유를 상징하는 행위로 보기도 한다.

### (2)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

남성에게 있어서 성은 매우 흥미 있는 이야기 거리이다. 친구들과 때와 장소에 관계 없이 서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그때도 역시 성경험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한다. 오히려 경험이 없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하며, 이는 남성적인 것으로 영웅심, 성적능

력의 과장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의식은 남성은 성욕구(性欲求)를 자제할 수가 없다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성욕구를 자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강간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에서도 확인이 된다. 많지는 않지만 강간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었다. 예쁜 여자를 보면 정복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리고 성충동과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남성도 있다.

반면, 여성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성욕구가 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이가 높을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았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남녀의 성욕구가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성행동에서는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 예로, 사귀는 여성이 먼저 성적인 접촉을 요구해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답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즉 당황하거나 상대방 행실에 의심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 (3) 여성의 이분화

남성의 성개념이 성관계와 성적 대상으로서 여성과 연관되는 것은 남성의 일반적인 여성관 역시 성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일차적으로 남성에게 여성은 성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성과 동일시되는 존재로 여겨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에게 여성은 연애 대상과 결혼 대상으로 구분 짓고 있다. 이는

속된 말로 데리고 놀 여자와 지조를 지키고 결혼할 여자로 구분하는 것인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요즘에 와서 이런 생각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없어져 가고 있으나 아직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정서는 여성은 보호해 주어야 하고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 이는 지난 세대를 통하여 여성에 대한 올바른 연구가 없었으며 여성의 힘을 제대로 본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여성들조차도 여성은 감성적이고 세세한 부분이고 남성의 비어 있는 범주를 채워줄 뿐 내조자로서 열등한 존재로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우정에 관한 보고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남녀의 관계가 성관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근본적으로 남녀관계에서 이분법적인 여성관을 갖고 있는 한 진정한 인간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4) 성경험

성경험이라고 할 때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성관련 지식에의 접근, 이성과의 만남, 가벼운 신체적 접촉, 성관계 및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경험 등 많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 (5) 미혼 남성의 성

혼전의 성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주제로서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를 알아보면, 역시 남성이 자신은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성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이지 못하였다. 남성들이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도 매우 당연시하면서도 오히려 동정을 지키는 사람을 바보로 생각하였다. 이울 배반적으로 남성이 때가 묻었으니까 여자는 더 순결하기를 바란다 고 한다. 혼전의 성경험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많이 경험하지만 요즘은 10대 후반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첫 성교 대상자가 어떤 여성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유흥업소 종업원, 매춘여성, 애인이나 친구의 순으로 나타났고 은 충일수록 애인이나 친구 사이가 많았다. 혼전 성경험에 대한 남성들은 죄의식이나 성병 걱정 등을 열거하고 있지만 보다 인상적인 것은 성관계에서 막연히 같고 있던 기대와는 다른데서 오는 실망감이라고 하였다. 이는 남성들이 매우 의미 있게 곱씹어 봐야 할 문제이다.

## (6) 기혼 남성의 성

혼인한 남성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생활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는 과장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이는 자신의 부부관계는 성스러운 것이라 남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거나 너무나 당연해서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주요 이유이다. 성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은 부부관계가 매매춘이나 외도 등의 경험과 달리 남의 흥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심거리가 아니라 부부간의 사생활이라는 인식이다. 또한 부부관

계는 흥미롭게 할만한 특별한 경험이기보다는 기혼 남성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는 당연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대부분은 성욕구의 문제를 부부사이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 집밖에 곳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부부사이 성관계는 출산이나 갈등 해결을 위해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여성에게도 큰 영향을 끼쳐서 남성에 대한 성적인 기대보다는 갈등을 풀기 위한 방법이나 의미 없이 관계유지를 위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을 볼 수 있다. 서로의 애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거나 솔직하게 대화로 풀어 나가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성적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임을 생각할 때 부부간의 관계가 오히려 비성적인 것은 새삼 주목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2. 우리사회의성문화유지기제

성문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 유지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데 청소년기 성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이 일차적인 성의 사회화 과정이라면 성인이 된 후에 다양하게 접하게 되는 정보나 경험들은 실제적인 2차적인 성의 사회화 과정이라 하겠다. 이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문화의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통한 강화 재생산 과정이기도 하다.

### (1) 성의 사회화 과정

성의 사회화(社會化)는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에 포함된다. 사회마다 나름의 규범과 특성을 갖기 마련이고 그러한 사회의 기대는 각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개인의 특성에 의해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공통점을 지니고 스며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는 교육제도가 부모 대중매체를 통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를 전달하게 된다. 그 중에서 특히 성과 관련된 태도나 인식, 행동, 규범 등의 문화를 습득해 가는 과정을 성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성의 사회화 역시 태어나서부터 일생동안 지속되는 과정이지만 여기서는 성에 대한 육체적 심리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보통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보면 공식적인 사회화와 비공식적인 사회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 공식적 성의 사회화

공식적인 성의 사회화 기제를 통한 경험이 미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체계적, 과학적으로 성지식을 습득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의미한다. 성의 공식적 사회화는 양적인 측면에서 미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공식적인 성의 사회화는 성교육 자체 책자가 대표적인데 그 내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교육 내용을 보면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남학생은 성병 조심, 여학생은 순결을 아직도 강조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수준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 (3) 비공식적 성의 사회화

공식적 성의 사회화의 질적, 양적 미비는 성에 호기심을 가질 나이인 청소년들에게 다른 통로, 즉 비공식적 통로를 통한 관심의 충족을 유도한다. 인간은 누구나 성장에 따른 성적 호기심이 따르기 마련인데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것이 또래 집단이다. 친구의 경험담을 통한 정보의 전달, 소문 등은 실제든 과장이든 흥미 있는 이야기거리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성욕구가 가장 강한 것은 생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억압을 하는 환경도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부모에게 성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미 그들은 포르노 필름이나 만화를 통하여 왜곡된 많은 성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비공식적으로 얻은 성지식은 대부분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이분화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 (4) 남성다움과 성

성의 사회화는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의 일부이자 상호영향을 미치는 과정이기도 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의 사회화는 특히 성역할 사회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각 성에 부과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성역할은 성의 사회화 과정

에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남성다움을 배우는 곳은 동료 집단이다. 그들은 호기심에서 또는 과시하기 위하여 떠벌리며 이야기한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남성다움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해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서로 간의 결속이나 사회적응력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5) 성의 상품화

이 사회는 여러 가지 성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아주 보수적인 문화, 아주 자유 분방한 성문화 등 매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성문화를 이루는 한 단면이 성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달로 인해 향락산업은 성의 상품화를 가속화 시켰다. 이러한 성 상품화는 경제적인 부조리와의 관련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명목으로 일차 이차 술자리를 마련하고 매춘까지 연결되기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남성들이나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가져왔는데 이는 경제부흥이라는 그늘에 가려 더욱 더 가중되고 일반화 되어갔다. 이런 성의 상품화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나마 표방하던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는데 일조를 해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한글**

## 건강상식

《알아봅시다》

**항암식품 (3)**  
**꽃양배추**

꽃양배추(Cauliflower)는 겨자과의 야채로 양배추, 브로코리,芽양배추와는 사촌간의 관계로 항암 야채로서 상위에 속하고 있지만 역시 우리들의 식생활과는 거리가 있다. 이 야채는 암의 위험 특히 결장암, 직장암, 위암, 전립선암, 방광암의 위험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노르웨이의 최근 조사에서는 항상 카리후라워, 브로코리, 芽양배추로부터 많은 칼로리를 취하는 사람들은 결장내의 전암성의 포리프가 적고 또 적은 것이 분명해졌다고 한다.

실험동물에 카리후라워를 주고난 후 나이트로조아민과 같은 강력한 발암성 물질을 투여하면 카리후라워를 투여하지 않은 군에서처럼 간단하게 암에 이환되지 않는다. 리·왓텐버그박사의 연구에서 카리후라워를 투여하지 않는 랫드의 94%가 암을 발생한 것에 대해 카리후라워를 섭취하고 있었던 랫드는 63%만이 암에 이환되었다.

과학자들은 카리후라워에 포함되고 있는 인돌류의 화합물이 신체가 갖고 있는 자연의 방어력을 높이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는 발암물질을 중화하는 신체의 해독 시스템을 부활시키고 있기 때문에 발암성 물질이 세포를 공격하여 암성조직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카리후라워에는 카로테이나 엽록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 기타 담배와 관련되고 있는 암에 대해서는 힘이 없다.